

#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

신약전서 세미나리 교재

로마 병사들은 거의 300명이 탄 배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태웠다. 거센 폭풍이 자주 발생하는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항해는 느리고 힘들고 위험했다.

사도행전 27장 9~13절을 읽는다.

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, 사람들은 배를 수리하고 짐을 줄이려고 했다.

사도행전 27장 20~26절을 읽는다.

끔찍한 폭풍이 14일간 지속된 후, 그들은 위태로운 상륙을 시도했다. 선원들은 배가 암초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하여 닻을 내리고 배를 포기하려고 했다.

사도행전 27장 30~36절을 읽는다.

그들은 배를 더 가볍게 만든 후 상륙시키려 했다.

사도행전 27장 41~44절을 읽는다.